광주시 감사위원회 '이상한 감사' 논란

당초 자동차밸리위 기부금 조사…7일 뒤 문서유출 문제 삼아

청와대 행정관까지 수사 의뢰 방침…위원장도 '이례적' 인정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의료기업의 투자 유치 문서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네져 제3자에게 유출됐다'며 감사를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가 제3자에게 유출된 근거와, 자료가 기밀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부적정 사용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지난 13일 감사에 착수한 후 일주일만에 엉뚱한 투자 유치 문서 유출을 문제삼아 대기발령중인 시 전략산업본부장과 과장,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 의뢰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것이 시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21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의료기업 메드라인의 기업 정보와 투자 규모 등이 적힌 문서가 지난 9일 전략산업본부장의 지시로 투자유치과장, 자동차산업과장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사전 승인이 없었으며, 투자자가 이를 항의해와 지난 19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광주시와 계약서는 물론 MOU(양해각서) 조차도 없는 '구두'로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기밀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유사한 문서를 청와대 다른 행정관에게 보낼 때는 투자자의 승인을 받았으나, 3월 9일에는 이 같은 과정 없이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 감사위원회가 대기발령중인 간부 공무원의 컴퓨터 본체, 메일 등을 조사하는 등 당초 감사 목적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위반 사항을 골라내는 감사가 아니라 마치 이들 간부공무원의 업무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은 "이례적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며 "당초 자동차밸리위원회의 기부금만을 살펴보려했으나 전략산업본부의 투자 유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대기발령중인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적 감사'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감사로 인해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밸리사업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높다.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할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시 감사위원회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상황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자격 논란이 일었던 박병규 경제부시장 취임 이후 직제상 산하에 있는 전략산업본부의 업무 전반이 지역사회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불거진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광주 테크노파크 대표 선임, 메드라인 투자 관련 문서 유출 등은 모두 전략산업본부의 업무다. 독립기관인 시 감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개연성도 높다. 시 감사위원회가 청와대 행정관까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청와대로 건네진 자료가 시장 후보캠프에 건네졌다는 소문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위원장도 "이 문서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해임 의결

태양광 임대사업 특혜 혐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조만간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전남테크노파크(이사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모 원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테크노파크를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나오면 김 원장은 해임된다.

김 원장은 20년간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혐의로 해임 의결됐다. 전남도는 김 원장이 독단적으로 법인 기본재산을 특정업체에 장기 임대해줘 특혜를 줬으며, 이는 정관 위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적발된 특혜 혐의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해임 원인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김 원장과 함께 직위해제된 A단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결탁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더라도 전남도는 차기 원장 공모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 도지사 체제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의료기술 강화' 공모 5년 연속 선정

올 국비 1억원 확보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 평가에 5년 연속 선정됐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1억원을 포함, 2014년부터 국비 총 5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해 특화된 의료관광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14개 시·도가 응모해 보건복지부 평가를 거쳐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핵심의료기술로 조선대치과병원 임플란트(치과치료)를, 연계의료기술로 전남대학교병원 뇌치료, 청연한방병원 한방치료를 구성해총 사업비 3억원(국비·시비·민간 각 1억)을 투입해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대치과병원의 치과 의료연수 및 교육모듈 개발이 전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이를 활용하고 양·한방 연계 치료·교육 프로토콜을 확대 개발해 융복합 웰니스 의료관광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 평가에서도 전남도와 상생협력으로 공동 참여해 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어 광주시의 의료관광 전담팀 신설과 함께 의료관광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최상위 수준이다"며 "광주형 의료관광모델 개발과 해외 마케팅 홍보를 강화해 의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MB 영장심사 취소…검찰, 구인 안 하기로

법원, 오늘 절차 최종 결정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거나 구인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안 등이 가능한 상태다. /연합뉴스

MB 자택앞 몰린 취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예술단 6명 오늘부터 평양서 사전점검

"김정은 공연 관람 미정"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점검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소수의 공연관계자와 당국자가 베이징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사전점검단은 6명 규모"라며 "공연전문가들이 가서 주로 조명, 무대, 음향 등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실무적인 것들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점검단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방북해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할 우리 예술단의 숙소에 대해 "고려호텔이 숙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예술단 공연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이번 공연과 관련해 미국 측하고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첨단산단~빛고을로 연결도로 착공

광주 R&D특구인 첨단산단과 빛고을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된다.

광주시는 21일 윤장현 광주시장, 최경환 국회의원, 이은방 시의회 의장, 시의원, R&D특구 입주기업·기관 임직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빛고을로 용두교차로 하부에서 시작해 영산강을 횡단해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750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0억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0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와 교량 폭이 좁아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대형화물차 통행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정체 등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국 · 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3㎡ 투자성 좋음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 완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송광아파트옆 토지 166㎡ 건평 180㎡ 3세대생활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로접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5700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1억2500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장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영암읍 역리 대로접 준공업지 1702㎡ 급매 2억2천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접 1억3천
• 화순 동면 장동리 땅 213평 건평 60 은행 1억5천 매도·교환 2억5천
• 제주도 서귀포시 별장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장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좋음 12억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수완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토 지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서구 매월동 대로변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옥 적합)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변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옥적합)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나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적리 제1종주거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종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4억5천만원(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완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펜션, 카라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